

고은의 불교 대하소설

두 스님 사이의 꿈과 더불어

푸른 하늘 만한 것이 어디 있으리.
고려 무신란에 의한 비운으로 기울어
져 당장 한 그릇의 밥에도 궁핍하지 않
을 수 없었던 시인 임춘(林椿)은 그의
시와 시론 역시 오랜 불운으로 몇 백년
동안 세상의 안배 오르내리지 못하였다.
하지만 가을 바람인들 여찌 쌓인 낙엽
들을 가만 두고 말겠는가. 우수수하고
가지에 남은 잎새가 떨어져 날리고 이미
떨어져 갈려 있는 것들은 그것대로 바람
이 시키는 대로 더러는 뒤집으며 더러는
서걱이며 한 무더기씩 구울러 가는 것이
었다. 그런 낙엽이 구울러간 자리에 지
난해의 북은 일세도 반쯤 찍어서 울릭
드러났다.

과연 이인로(李仁老)들과 어깨를 곁고
당대의 시단을 주름잡던 그 문기론(文氣
論)의 사명을 한 몸이 담고 있던 현재
임춘이 그의 참담한 말로 이래 세상에서
있히는 바가 되었음은 저이기 부당한 것
이 아닐 수 없다.

무릇 오래동안 잊혀진 존재가 어찌 일
흔 하나 뿐이겠는가. 한반도의 세월은
시인의 보석 따위를 돌덩이로 알아 자갈
밭에 던지기 일수였다.

중세의 그 정경하기까지 한 시론으로
서의 주기적(主義的) 문학관을 내세운
그 기상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시대
는 무정하게 흘러간 것이다.

그렇게 되자 고려 중기의 그 자신실
높은 죽림고회(竹林高會)의 핵심 인물이
었던 임춘은 망각의 저편에 파묻혀 버
릴 수밖에 없었다.

그가 쓴 시들도 이상하리만치 자취를
알아볼 수 없는 인연 그것이었다.

세월은 모진것으로, 한반도의 삶과 죽
음과 함께 흘러오는 중에 고려 시대를
지나고 조선조 후기 속중 조에 이르러
인담(印談)이라는 시승(詩僧)을 맞이한
다.

그는 서산 사명 계열의 이름 높은 산
문에도 속하지 않은 어름잡은 무사승(無
師僧)이었다. 그래서 "내에게도 성립한
한 스승이 있다며 얼마나 좋으리"하고
그 자신의 신세를 호소하기 슬퍼하는 바였
다.

가을이 가고 있었다. 피라한 충청도
태안반도 밖 무욕도(無慾島) 암자 주위
도 가을 파도 소리로 사뭇 울추라들고
있었다.

밤이 깊었다. 혼자 오후불식의 맑은
몸으로 선장에 들어 묵조(默詔)의 한 동
안을 보낸 뒤 잠이 들었다.

그였다. 꿈을 꾸는 일이 없었다. 그런
데 그날 밤에는 꿈을 꾸었다. 그것도
먼 곳으로 여행하는 꿈이었다. 그 꿈은
순도에서 몇 백리 상거의 마시현 산맥의
발봉인 보장산(寶藏山)에 당도하는 대륙
에서 거의 생사와도 방불하였다.

보장산 중턱의 깎아지른 절벽에 마애
불이 새겨져 천고(千古)의 풍상에 견디
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웠다.

인담은 저절로 고개를 숙여 그 마애불
상 아래에 대고 절을 하였다. 그때였다.
마애불의 절벽 밑에 큰 굴이 캄캄한 아
가리를 벌리고 있었다.

그는 갑자기 무서워졌다. 비록 자랑
할 것은 없으나 그동안 착실한 공부를
한 선승인자라 자극한 도인에게 꿈 따위
를 꾸지 않는 바에 다가가 있는데 난데
없이 꿈을 꾸는 것은 무엇이며 이 따위 굴
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는 도무지 출가를
남지않고 있었다. 반야심경의 그 무서움
없는 경지는 그저 말 뿐이던가.
어쨌거나 인담은 그곳에서 물러나 다
시 오던 길로 돌아왔다. 한양성은 중의
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그는 행주나루에
서 담진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루를



북는 밤중에 다시 꿈을 꾸었다.
굴 속에 늙은 스님이 나타났다.

"너 인담아, 스승 없음을 슬퍼하지 말
아라. 참된 중에게는 스승 따위가 없느
니라. ... 내 말을 듣고도 굴이 스승을
인한다면 내가 네 스승 노릇을 해주마.
내 법호는 담인(談印)이다. 그러나 네
법명 인담을 거꾸로 쓰면 내 법호가 되

격하여 스승과 제자가 하나로 된 것
이 아니겠느냐"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.
"오 스승이시여, 담인스승이시여" 라
고 인담이 즉각 감복하였다. 호독호독
울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.

"물지 말아라. 내가 우니 나 또한 가
슴이 북바치는구나 ... 과연 내 제자인
너는 사인이므로 사인답게 세상을 울 줄
아는구나. 하나 너는 사인이기에 앞서
중이로다. 중에게는 정이 많으면 도가
멀어지거나 그릴지라도 시를 짓는 중
일진대 여찌 도만 행기고 정을 잘라 버
릴 수 있겠느냐."
"..."

"그런 즉 내가 고려 시대의 빛나는 시
인 하나를 너에게 소개 할 터이니 ... 어
서 그 사인의 문집이 숨겨져 있는 곳으

로 갈지이다. 그곳은 황해도 동쪽 보강
산이나라."
"스승이시여"

"됐다. 이제 나는 갈테니 어서 네 할
일을 할지이다" 라고 말하는 스승 담인
은 그 자취를 갑자기 운무 가운데 감추
었다.
그 꿈에서 깨어나다.

상자 안에는 닥종이로
된 책 24권이 비단 보자
기로 씩운대로 들어 있
었다. 책은 너무나 오랫동안
참고 있었던 숨을
그때서야 내쉬는 것처럼
말없는 기쁨을 내보이고
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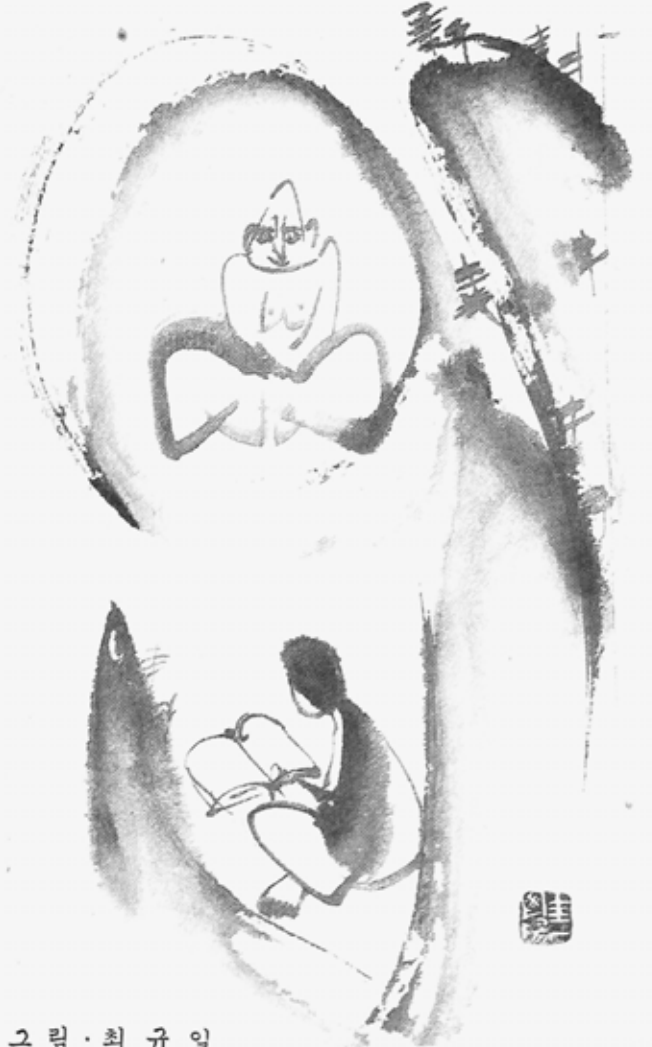
인담은 절벽 마애불상 아래의 굴 안으
로 더듬더듬 들어갔다. 그의 의자라기보
다 그 안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
다.

굴 안은 깜깜하였다. 굴 속에서 무서
워 했던 것과는 달리 인담은 그곳이 무
척이나 낯 익은 것으로 여겨졌다. 혼자
중얼거리기까지 할 만큼.

"꼭 편안한 곳이로다. 이곳이야말로
안양세계(安養世界)의 한군데 아니냐."
그는 한동안 굴 안에서 가만히 앉아
있었다. 굴의 높이는 밖에서 생각하기와
달리 사람이 앉아 있기에 불연하지 않았
다. 다만 입어서서 움직일 때는 머리를
숙여야 할 정도였다.

특이한 것은 그 굴 안에는 숨기가 없
다는 사실이었다. 그동안 짐승이라도 살
던 곳인지 따뜻한 기운의 흔적도 느낄만
하였다.

인담은 아전으로부터 된 책적을 맞은
얼굴 한쪽에 아직 약간의 통증이 있었
다. 속중 2년 소위 요승 처경(處敬)을
처형한 뒤 비록 산중일지라도 승려들의



그림·최규일

라고 행사의 달필로 되어져 있었다.
인담은 어린 아이처럼 기뻐 어쩔 줄
몰랐다. 그 문집은 시와 서할 따위를 포
함한 산문으로 채워지고 있었다.

"아니 이것은 또 무엇일까?"
하고 인담이 물었다. 먼 밑의 세 질
제8권의 책 같기에 깨알같은 새필로 쓴
소책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.

인담의 눈이 크게 떠졌다. 그는 성를
굴 밖에 그것을 들고 나왔다. 종이는 너
무 오래되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
루어야 하였다.

그 작은 책에는 특별히 표제가 없었
으나 첫 장의 하부에 「수미행(巽巽行)」
이라는 제목 비슷한 것이 앞세워져 있
었다. 마지막 장 그림머리에선 이름이
생략된 채의 간략한 발문이 붙어 있었
다. 그 끝가에는 고려국(高麗國) 난세
(亂世) 신묘(神妙)라는 표기가 눈에 띄
었다. 인담이 손가락을 펴보고 읽어보고

한편에 그 신미년은 바로 최씨 군사정권
이 멸망한 국면을 맞은 해로 단정하였
다. 실려져 최우(崔瑀)의 아내가 죽자
왕후의 장례로 삼을 치르었고 이어서 봉
고군이 고려를 침입한 해이다. 그렇다면
4백46년 전의 책이 이제야 빛을 만난
것이다.

"담인 스승이시여! 스승이시여! 이제
소승은 원도 한도 없사옵나이다" 라고 인
담은 마애불 절벽 앞의 깊은 굴막기에
대고 외쳤다. 외치는 소리의 여아리가
결결코 주고 받으며 떠나갔다.

며칠 걸려 올라선 절벽 아래 거기 마애불상 있으니...

느니라. 이것도 기이하였다. ... 나는 고
려의 중, 너는 이성계 왕조 저 하대의
조선 중이로다. 이렇게 아득한 세월을

다물날 인담은 세상 비장한 각오를 하
고 속도 속으로 향하였다. 가는 도중에
한 아전으로부터 어이없는 곤욕을 당하
였다. "이 대명천지에 중 놀이 함부로
대로를 갈다니" 라는 말과 함께 쇠가죽
채찍을 맞아 얼굴에 길다란 생채기가 났
다.

그는 죽은 듯이 얼드려 있다가 수재
들길로 접어들었다. 오려려 그 들길에
지름길이 된 셈이어서 보장산까지의 거
리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.

며칠을 걸려 그 칼날 같은 산꼭대기로
부터 거의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
당도한 인담은 무욕도에서 꿈 꿀 그대로
의 마애불상을 만날 수 있었다.

그는 무척이고 오체부지로 절을 거듭
하였다.

그런 다음 그곳 일대를 둘러보았다.
산세에 기상이 가득 담겨서 그때문에 그
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마음껏 사나울
수 없는 것 같았다. 아난게 아니라 순한
고라니가 나타났다가 슬슬 사라지는 것
이었다.

운산이 무척 조심스러웠다. 이런 시절의
여행은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.

인담은 외딴 섬에서 살고 있었으므로
처경이 주장하는 미래불 마복부처님이
굴 운다는 주장으로 검거된 사실도 몰랐
으며 갖은 고문으로 충성이 되다시피 한
채 주살된 사실도 통 모르고 있었다. 나
라는 노론(老論) 송사열의 속행에 이르
는 당면으로 합악한 내내이었으니 한 뜻
있는 승려가 세상을 바로 잡으자 하는
예언을 미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
그런 사람을 요승으로 제거하였다.

그런 뒤굴에 인담이 황해도 보강산 암
굴에까지 왔으니 자못 아슬아슬한 일이
였다.

"아니!"
하고 인담의 손이 굴 안함을 어루만지
다가 어떤 상자를 알아본 것이다. 그 상
자는 굴 바다의 낮은 곳에 알맞게 반쯤
박혀있었다. 그가 그것을 두 손으로 들
어올랐다. 가로 2자 세로 1자 그리고 높
이는 반 자가량 되는 등직한 것이었다.

인담이 그 상자를 굴 밖에 가까이 들

고 나왔다. 상자는 삼근으로 확실히 묶
여 있었다. 열은 바람 속에 넣어둔 장도
를 꺼내어 그 끈을 잘라 내었다. 끈은
굴이 잘라 낼 것도 없이 삭아있었다.

상기 뚜껑은 마치 열어 줄 사람을 기
다했다는 듯이 아주 쉽게 열렸다. 아니
나무상자 자체가 삭아있었던 것이다.

"아이"
하고 인담이 낮은 소리의 한숨을 내쉬
었다.

상자 안에는 닥종이로 된 책 24권이
비단 보자기에 싸운대로 들어 있었다.
인담이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보았다.

책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숨
을 그때서야 내쉬는듯한 말없는 기쁨을
내보이고 있음에 틀림없었다. 인담의 얼
굴에도 그 기쁨이 반사되었다.

24권의 책은 그 내용이 똑같은 것 세
벌이므로 각각 8권이 한 짝이 된다.
그것을 이 굴 안에 숨겨둔 사람이 한
집안으로는 안되었기에 세질로 채워 넣
고서야 안심한 것인지 모른다.

책 표지에는 「서하문집(西河文集)」이

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

| | | | | | | | |
|--|--|--|--|--|--|--|---|
| <p>수원장무구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-338 ☎ 331-3037, 3060</p> | <p>범패조사 주 지 惺虛法穩 신도회장 범선·주당현·대정각·이정희 총 무 福德光·金利男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3 사서함3호 ☎ (0395)521-4667</p> | <p>지악산종련암 주 지 김정숙 호 신도회장 소초면 교학2리 153 ☎ (037)451-0448 731-10448</p> | <p>구룡사 통도사 청원포교당 주 지 석지형 강원도 소담동 909 ☎ 551-6359</p> | <p>범륜사 주 지 이일지 사 신도일동 동작구 상도2동 363-142 장승B/D ☎ 814-9946</p> | <p>매곡매곡신문 대표 박갑용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36-6 ☎ 4851-2991</p> | <p>한구생명과학연구소 회장 조병선 사장 박형철 선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도성리 148-3 대표전화 (0417)566-6679</p> | <p>서강물교미술원 원 장 정규진 서울시 중랑구 청진동 196 ☎ 73018072 (야) 64810930</p> <p>文化財修理 丹青技能 708號 鍍金機能 821號 嶺南丹青佛像造成</p> |
|--|--|--|--|--|--|--|---|